영동권 유일 도축장 역사의 뒤안길로

미소울 지난해 12월 폐업, 10년간 영업중단 … 축산인들 경제적 손실 호소

고성지역 축산농가들이 토성면 인흥리 소재 도축장 미소울의 폐업에 따라 평창이나 원주지역 도축장으로 장거리 도축에 나서면서 물류비용 증가와 가축 무게 감량 등으로 인한 손실을 호소하고 있으나, 뚜렷한 대책이 없어 울상을 짓고 있다.

고성군에 따르면 미소울은 지난해 9월 경영악화로 인해 공장가동을 중단했으며, 12월에는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보상금까지 받아갔다. 미소울은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영업을 할 수 없다.

고성군은 그동안 축산농가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도축세 체납에 따른 공매처분을 미루고, 도축세율을 1천분의 10에서 1천분의 5로 50% 감면해주는 등 행정적인 지원에 나섰으나, 폐업을 막지는 못했다.

지역 축산인들은 미소울의 폐업으로 평창과 원주지역 도축장으로 원거리 도축에 나서면서 1회 도축 때마다 물류비용이 종전보다 20만원가량 증가하고, 장거리 운송으로 인해 가축들의 무게가 5kg 이상 줄어들어 가축가격이 하락되는 등의 손실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 정책의 방향이 축산물 안전관리 등을 위해 도별로 2~3개의 우수 도축장만 남기고 폐업을 유도하는 추세인데다, 미소울이 10년간 영업을 중단하다보면 관련 시설이 전부 무용지물이 돼 현재의 상태로 재가동에 들어가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지역에 미소울과 같은 도축장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10년을 기다린 뒤 현재의 자리에 새로운 도축장을 건립하거나, 고성군이나 민간업체가 영동지역에 도축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최신식 도축장을 새롭게 건립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고성에 영동 유일의 도축장이 있었다는 사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토성면 인흥리 소재 도축장 미소울이 지난해 12월 폐업신고를 한 가운데, 지역 축산농가들이 장거리 도축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등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고성축협 관계자는 "워낙 규모가 큰 사업이라 축협 차원에서 손을 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나 도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고성군 관계자는 "미소울은 농림식품부로부터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 우수축산물) 인증까지 받은 업체였으나, 경영악화로 문을 닫게 돼 안타깝다"며 "지난해 12월 폐업보상금까지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10년간은 재가동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개업집

애슐리 설악비치점

시원한 바다 보며 선상에서 식사하는 분위기

지난 21일 고성군 토성면 켄싱턴리조트 1층에 패밀리 레스토랑인 애슐리 설악비치점이 개업했다.

애슐리 설악비치점은 이랜드 외식사업부가 운영하는 최초의 리조트형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설악권에서는 처음 문을 열었다.

130석 규모를 자랑하는 애슐리 설악비치점은 전 좌석에서 시원한 동해바다와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다.

특히 내부 천장에는 뱃머리 모양의 디자인을 도입해 마치 선상 위에서 식사를 하는 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밥과 황태미역국, 섭죽 등 개운한 속풀이용 한국식 메뉴와 보일드 소시지, 잉글리쉬 토스트 등 유럽스타일의 메뉴로 구성된 브런치 타임을 운영한다. 로스팅한 원두커피와 샐러드바도 이용할 수 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는 런치타임,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는 디너타임이다.

런치와 디너에서는 60여가지 신선한 샐러드와 즉석 그릴, 와플과 에스프레소 등을 맛볼 수 있다.

지난 21일 문을 연 애슐리 설악비치점 정경진 점장은 최고의 맛과 서비스로 고객들을 모시겠다고 말했다.

특히 디너타임에는 리조트 숙박 고객들이 백사장, 파도 등의 바다경치와 함께 한여름 밤의 로맨틱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와인을 무제한 제공한다.

또한 가족단위 고객들이 룸이나 관광지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애슐리의 검증된 인기메뉴인 치킨과 피자, 케익 등을 포장 판매한다.

정경진 설악비치점 점장(29세, 사진)은 "설악권에 처음으로 문을 연 만큼 최상의 엄선된 재료로 조리한 음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최고의 맛과 서비스로 고객들을 모시겠다"고 말했다.

평일 브런치는 9,900원, 런치는 12,900원, 디너는 22,900원이다. 주말에는 모두 22,900원이다.

설악비치점은 연중 무휴이며, 각종연회와 단체 예약이 가능하다.〈638-1035〉

원광연 기자

경영이양 직접지불사업 최우수

농어촌공사 영북지사 … 사업계획 11% 초과 달성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지사장 최돈환)가 2011년도 상반기 경영이양 직불사업 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부서에 선정됐다.

영북지사는 상반기 중에 올해 연간 사업계획인 25ha를 11% 초과해 27.8ha를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다.

경영이양 직접지불사업은 고령농업인이 전문 농업인에게 농업경영을 이양하면,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는 연금형태의 제도를 말한다.

지급연령은 65세부터 70세까지 최장 10년간이며, 지급기준은 매도와 임대를 동일한 조건으로 해 1만㎡당 월 25만원을 지급한다.

최광호 기자

학사평저수지 인공식물섬 설치

농어촌공사 영북지사가 농업용수 수질오염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토성면 학사평저수지에 노란꽃창포 인공식물섬을 설치했다. 인공식물섬은 농업용수 수질개선, 어족자원 증가, 저수지 경관효과 증대, 녹조방지의 역할을 하게 된다.

최광호 기자